

보도시점 2026. 10. 13.(화) 조간 < 2026. 10. 12.(월) 12:00 >

중기부, 전국 17개 시·도에서 ‘1차 모두의 창업’ 지역별 오디션 개최

- 10.13(화)~15(목)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별 공개 IR 평가 진행
- 시제품 제작 등 보육 프로그램을 거친 500명 대상,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 및 시장진입 가능성 등 검토
- 선발된 200명 대상, 사업화자금 1천만 원 및 선배창업가 멘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이하 ‘모두의 창업’) 지역별 오디션을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제품 제작부터 실전 창업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창업 시대 대국민 프로젝트이다.

이번 지역별 오디션에서는 1차 공모 신청자 6만 2,944명 중 1라운드를 통과하고 2라운드에 진출했던 일반·기술트랙 도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다음 3라운드(권역별 오디션)에 출전할 200명을 선발한다.

그간 중기부는 2라운드 진출자를 대상으로 기술 멘토링과 초기 사업화 자금(최대 1천만 원), 규제 스크리닝,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과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 협약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라운드 진출자 중 20개 기업이 29억여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458건의 특허 출원과 192건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프로젝트 지원 초기 단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역별 오디션은 이전 라운드까지 진행된 멘토 중심의 평가에서 한 단계 나아가 투자자와 기술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도전자들의 공개 설명회(IR) 피칭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 아이템 우수성,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오디션 현장은 진출자뿐만 아니라 지역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류 공간으로 운영된다.

진출자들의 아이디어 및 시제품 전시공간을 비롯해 선배 창업자 인사이트 강연, 투자 매칭 데이, 재도전 클리닉, 로컬 판매전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별 상세 내용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두의 창업’ 지역별 오디션 결과는 차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200명에게는 사업화 자금(1천만 원)과 선배창업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향후 5개 권역별 오디션을 거쳐 TOP 100명에 선발될 경우 협약을 거쳐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10월 13일(화) 비수도권 중 1차 모두의 창업 신청률(7.4%)이 가장 높았던 대구 지역 오디션 현장(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을 찾아 도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역별 오디션은 멘토링 등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도화된 아이디어와 시제품의 사업화 가능성을 전문투자자와 시장 관점에서 평가받는 실전 무대"라며, “권역별 진출자에 대한 후속 지원뿐만 아니라 도전과 재도전을 이어가는 창업 인재들이 꾸준히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호중	(044-204-7950)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4-7673)
		담당자	주무관	박진혁	(044-204-7957)

